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음**

9/11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3:17

17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다.”

갈 1:15-16

15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마 12:18

18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곧 내 혼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둘 것이고, 그는 정의를 이방인들에게
알릴 것이다.

마 17:5

5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골 1:15-17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주님과 함께 전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 더욱더 분명해져야 한다. ...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서
표현되시고,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시며, 심지어
모든 것이 되시는 정도까지 일하시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나는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입는 옷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그
깊이가 너무 얕다. 또한 여러분은 “음식과 옷은
사실 우리의 생활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일과 봉사가 그리스도를 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조차도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음식과 옷과 관련한 문제에서
조차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봉사에 관한 기본 인식, 2장, 277-278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은 “왜냐하면 모든 총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라고 말한다. 또한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다.

구약의 예표와 계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안식일의 실재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
거룩함의 실재는 그리스도이다. 성경 전체의 모든
문장은 그리스도 자신의 실재를 가리킨다. 온
우주와 심지어 모든 나무와 꽃과 풀잎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아름다움의 실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열매의 달콤함은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달콤함의 실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많은 방면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 꽃과
열매를 사용한다. ... 의가 그리스도이고, 거룩함이
그리스도이며, 순수함이 그리스도이고, 인내가
그리스도이며, 능력이 그리스도이고, 수고가
그리스도이며,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신 거대한 한 폭의
그림이다. 이 그림 안에 있는 다채로운 모든 사물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다.
...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매우 분명해져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긍정적인 모든 것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실재이시라는 것을 보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 내야 한다. 우리가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 때,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공급하고,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에게 공급되시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다정하고 의롭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항목들은 실재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 성경이 인내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께 돌이켜 인내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그리스도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냄으로써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이 되기를 원하신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봉사에 관한 기본 인식, 2장, 278, 280-28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봉사에 관한 기본 인식, 2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6, 8장; 에스겔라이프 스타디, 11장

9/12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9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1

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골 1:9-14

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11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며,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14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곧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복음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생명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빛(요 1:14, 8:12)이시고, 생명의 숨(20:22)이시며, 생명의 물(4:14, 7:38)이시고, 생명의 떡(6:35, 48)이시라고 말한다.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음식이 필요하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가지들의 모든 것은 포도나무에서 온다. 포도나무는 가지들에게 생명뿐 아니라 생명 공급도 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봉사에 관한 기본 인식, 2장, 285-28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전 15:45 하). 주님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고후 3:17) 바울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광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딤후 4:22)라고 말했다. ... 더욱이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고전 6:17).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요 4:24).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영을 접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입니다.”(요 6:6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쇠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롬 8:4)에 달려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영을 끄지’ 말아야 한다(살전 5:19).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주 예수님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분은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봉사의 열쇠이다. 만일 우리가 이 요점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라는 것 등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 영이심을 보아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봉사에 관한 기본 인식, 2장, 287-288 쪽)

우리가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위치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을 누리는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변화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해질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신에,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에 신실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결코 교회를 보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교회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건강하던 병들었던, 살아 있던 죽어있던, 교회는 여전히 교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중심이심을 보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안전히 지켜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데서 보호받을지의 여부는 우리가 본 이상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심이심을 보았다면 우리는 안전히 지켜질 것이다. 회복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선택이나 선호나 입맛을 갖지 않기를 배우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선택과 선호와 입맛과 누림이시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 안에 보존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거나 빛나가 주님의 회복을 저버릴 것이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6장, 68, 66-67, 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3-4, 6장

9/13 수요일

아침의 누림

빌 3:13-14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핏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빌 1:20-21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3:9, 20-21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20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 4:11-13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의 주된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도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이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넘치게 누렸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로 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 그는 그리스도를 살았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빌 1:20)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풍성했던 바울이 또한 그리스도를 그의 표현으로 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의 모든 생활과 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그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의 다른 장점과 강점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와 일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표현되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안에서 확대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생명공과, 29과, 247-24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빌 2:5) ... 바울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과 표현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다.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이 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란, 사람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심지어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생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빌 3:9)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었으며, 그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였다. 이 의는 그가 살아 낸, 그의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이 살아 낸 의로 취했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일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추구하였다(빌 3:13-14). ...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표로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높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추구했다. 이 상 역시 그리스도, 곧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의 누림이신 그리스도이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능력을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주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빌립보서 4 장 8 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미덕들을 살아 내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위 있는 생활로 살아 내기 위해 그분을 능력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빌 4:11-12)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넘치게 체험한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에서든지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다. ... 그가 배운 비결은 다만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을 비결로 취했고, 그 결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서든지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였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빌 3:20)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은 그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들에서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의 기대로 취했다. (생명 공과, 29 과, 248-25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 공과, 29 과

9/1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빌 3:8, 12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출 33:11-14

11 여호와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12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13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디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고후 2:10

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엡 4:30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었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그리스도를 얻었는지의 여부는 다섯 요점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이신 신선한 공기 같으시다고 느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자신이 빛 가운데 있고 내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셋째, 우리는 내적으로 공급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즉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가 있고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는 살아 있는 떡이 있는 것이다. 넷째,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에 관련된 요구들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온도계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같으며, 생명이 계속 자라고 있음을 가리킨다. 다섯째, 우리에게 내적인 활력이 있을 것이다.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즉 자신에게 반드시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방면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성도들의 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6장, 111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의 첫째 방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에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 보자. 하나님은 마치 구름 같으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둘러싸는 공기와 같으시며, 우리에게서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곧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는 느낌이 생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또 하나의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는 내적으로 분명하고 밝고 빛으로 충만하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이다(요 1:4).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난 후에 내적으로 밝아졌다고 느낀다. ... 말씀을 기도로 읽기 전에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씀을 더 많이 기도로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에서부터 빛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의 셋째 방면은 우리가 내적으로 공급을 얻는 것이다. ...

그리스도는 생수이시며 살아 있는 떡이시다. 우리가 내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영적인 떡이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킨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내적인 공급을 받는다. 갈증이나 배고픔을 느끼는 대신 만족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 넷째 방면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능력과 관련된다. ...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다지 많이 얻지 못하고 생명의 성장의 정도가 낮을 경우, 그에게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향한 합당한 태도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태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에 주님의 생명이 그의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생명의 성장이 약간 있는 후에 그는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사람의 책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적인 생명의 성장이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죄들과 잘못들을 처리하는 것은 부정적인 방면과 관련하여 생명의 성장이 나타난 것이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성장의 결과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한 헌신이 너무 낮고 얕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류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헌신의 표준을 정할 방법은 없지만, 헌신의 척도는 우리의 생명 성장의 정도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다섯째 방면은 생명은 활동적이고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우리를 자극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속에서 죽어 있다면, 집회에 왔을 때 비록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찬송이든 기도가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생명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한다면 이 생명은 분명히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성도들의 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6장, 104, 106-111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6장

9/15 금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엡 1:17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3:5, 16

5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엠펙 4:23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엠펙 5:18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엠펙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사탄은 우리 육신적인 몸의 지체들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신다. ... 로마서 8 장 6 절에 참된 비결이 담겨 있다. 이 절에는 세 가지 항목, 곧 생각과 육체와 영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배워야 한다.

비록 우리가 이야기와 가르침이 있는 성경을 반드시 연구해야 하지만, 참된 비결은 로마서 8 장 6 절에 있다.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로마서 8 장 6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노력과 분투를 중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코 악이나 유혹을 이기려고 스스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당신을 항상 의지하고, 당신과 함께 서며,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주님, 제가 항상 당신께 제 자신을 맡기고 ... 당신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 2부—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1 장, 347, 349-35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창조된 영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이 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보배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영적인 역량과 무기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잘못된 관념이 있다. 그들은 장시간 기도를 드려야만 마치 원자 폭탄 같은 능력이 하늘에서 그들 위에 임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 장 16 절은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그런 다음 히브리서 10 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19, 22 절).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이다(히 4:12, 딤후 4:22).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자신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에 숙련된 사람은 능력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영의 느낌을 감지한 다음 그의 영으로부터 무언가를 말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다. 우리 모두가 이 비결을 배우고 진지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그 생각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순간, 육체가 아닌 영을 따르게 될 것이다. ...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게 됨과 영적인 승리와 생명의 성장과 능력과 주님을 누리는 것의 비결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시 39:1, 120:2-4, 141:3).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입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비결을 배우고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즉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기 전에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것이 비결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성도들의 묵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9 장, 159-161 쪽)

사람의 첫 번째 죄는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호에 따라 무언가를 취한 것이었다. 열매를 취한 것이 틀린 일은 아니지만, 혼의 선호에 따라 열매를 취한 것은 자아의 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첫 번째 죄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곧 자아를 만족시킨 것이었다. 혼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혼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된다. ... 우리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혼의 갈망과 선호와 선택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이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혼을 부인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6 장, 152-1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 2부—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1 장

9/16 토요일

아침의 누림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롬 10:13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 16:21-23, 25-27

21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

22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10:12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 승리에 이르는 길, 거룩하게 되는 길, 생명이

이르는 길,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길이 우리의 혼을 거절하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우리의 혼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영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방향할 것이고 안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안식 안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한다. 우리는 교통하기 전에 ... 성경을 읽기 전에 ...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든, 먼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의 혼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성도들의 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9장, 164-16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 달라고 구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18절). ... 변형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마주하셨다. 그러자 그분은 바로 말 못 하고 귀먹은 영을 쫓아내셨다. 마가복음 9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여쭙었다. ‘우리는 왜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29절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있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라는 것을 보여 준다.

기도의 의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가 진정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년 이상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고 그분에게서 배웠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과 힘과 신성한 전기가 없는 채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기도’라는 단어가 사실상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왜 이 사례가 우리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막 8:27-38) 다음에 나오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50절까지는 사실 우리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대치물이 되신다는 것이었다. 죽음은 우리를 끝내며, 부활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이끈다. 그 결과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이 계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남자의 아들에게서 말 못 하는 영을 쫓아내는 사례에 따르면, 그 이상은 기도 외에는 적용된다. ... 어떤 ‘귀신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내쫓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서 우리는 성질의 문제,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의 성질 문제를 들 수 있다.

주님께 왜 여러분의 성질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 너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단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짧은 기도이지만 이러한 기도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도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신 것에 대한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27 장, 252-2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27 장;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5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1권, 봉사에 관한 기본 인식, 2장

찬송: 538 (英) 내 안에 주 계시하길 (中:399)

1 내 안에 주 계시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종교 받지 말고 맘에 주 거하게 해

(후렴)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의 성취 아니요
내 안에 주 들어오셔 내 모든 것 됨일세.

2 내 안에 주 사시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일과 실행 주의 말고 다만 주를 누리세

3 내 안에 형상 이루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형식 좇지 말고 주만 증가하게 해

4 내 안에 거쳐 정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봉사 열심 떠나 주 날 점유하게 해

5 주만 소망 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영광 구치 않네 주가 곧 영광일세

6 내 안에 주 만유 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의 것을 구치 않고 주를 비결 삼으리

9/17 주일

아침의 누림

계 12:10-12, 17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과,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심한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17 여자에게 화가 난 용은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계 22:1-7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7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5:12-2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40-41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Being a Vessel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Scripture: 로마서 9:19-21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 23; Life-study of Exodus, msg. 21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403

churchinnyc.org/bible-study